나는 영화 본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스튜디오 필로
철학이 젊음에 답하다
올리비에 푸리올 | 푸른숲

"철학을 공부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한때 나는 철학과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인들로부터 "철학을 공부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라는 질문을 받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의례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철학자들의 책을 추천해주곤 했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무성의한 답변이었던 것 같다. 그것은 마치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는 사람에게 피카소 화집을 건네준 것과 무엇이 달랐을까. 만약 지금 다시 누군가 나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나는 이렇게 되물어볼 생각이다. "어떤 고민이 있는데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철학 속에서 새로운 고민이란 없다. 심지어 어떤 이는 서양철학의 역사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철학에 입문하려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작정 유명한 철학자의 사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자각하는 것이다.

영화는 현대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학교

이 책은 프랑스 대학입학자격시험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스튜디오 필로'라는 동명의 TV강연을 출판한 것이라고 한다. 젊은 세대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철학을 다루면서 영상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하여 영화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영화를 단순히 오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인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시뮬레이터로 보고 있다. 결국 영화는 발터 벤야민의 지적처럼 단순한 오락이라기 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현대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학교로 이해하고 있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데카르트를, 후반부에서는 스피노자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지난 30년 동안 개봉된 영화들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철학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사실 영화 속에서 철학적 담론을 끌어내어 서술하는 책은 그렇게 신선하거나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방법론적으로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철학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하나는 영화 속의 이미지를 사유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철학적 사유를 유도하는 방식인데 이는 다른 책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접근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의 텍스트를 정해놓고 철학적 개념을 영화 속의 이미지를 덧입혀 구체적으로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며 동시에 프랑스 고교철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데카르트와 매트릭스 –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란 말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전반부에서는 영화 속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데카르트의 철학적 사유에 접근하고 있다. 여기서 주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영화는 <매트릭스>이다. 작가는 비록 영화 속의 이미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철학적 사유를 위해선 그 속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얻는 이미

지는 최초의 인상일 뿐이며 그것이 사유의 영역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생각'이라는 필터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작가가 말하는 '생각'이란 곧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의심해보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란 말인가?" 이를 데카르트의 철학적 사유와 적절하게 섞어가며 매우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책의 설명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원래부터 철학적 주제를 담고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영화관의 스크린에 스피노자 『에티카』를 옮기다.

그렇다면 과연 같은 주제를 다른 영화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내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저자는 후반부에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때부터는 스피노자의 『에티카』 라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영화를 차용하기 시작한다. 책에 나온 표현대로 그것은 마치 '영화관의 스크린에 스피노자의 텍스트를 구체화시키고 움직임과 입체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전반부에서는 <매트릭스>를 중심으로 귀납적인 방법으로 데카르트의 철학을 설명했다면, 후반부에서는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중심으로 연역적 방법으로 설명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접근은 『에티카』라는 책이 스피노자가 인간 정신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수학자처럼 엄격하게 다루며 기하학적으로 서술한 윤리학 서적이기 때문에 된 것이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런 연역적인 접근방식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남는다.

"행동의 비결은 시작하는 것이고, 의지의 비결은 욕망하는 것"

결국, 이 책은 전반적으로 영화를 통해서 철학을 읽고, 철학을 통해서 영화를 보게끔 도와주는 교양서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책 전반에 걸쳐서 작가가 젊은 세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녹아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젊은이들의 모든 고민은 경험의 부족, 즉 '무지함'에서 비롯되기 마련이다.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에 불안하고 또 망설이게 된다. 하지만 작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를 구해주는 건 직관이 아니라 결정'이라고 강조한다. 더 나아가 어떤 면에서 우리는 결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모든 선택은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식으로 선택되었는가 하는 방법과 그 선택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끈기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선택이든 그것은 이미 선택되었기 때문에 옳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어떤 선택이든지 그 선택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끈기와 의지는 어디서 담보할 것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가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핵심메시지가 등장한다. 그것은 바로 '욕망'이다. 그는 "행동의 비결은 시작하는 것이고, 의지의 비결은 욕망하는 것"이라고 언명한다. 하지만 결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욕망하는 법을 가르쳐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욕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불가능성 속에 인간의 자유가 내재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는 자신의 미래를 묻기 위해서 예언자 오라클에게 찾아간다. 그러나 오라클은 아무것도 미리 말해주지 않는다. 단지 이제 곧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라는 말만 건네줄 뿐이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은 당신의 자유이다. 다만 망설이지 말고 자신의 욕망을 충실하게 따르도록 하라. 그 속에 참된 내가 있으므로.

권혁주(웹툰작가, 카툰부머 대표)